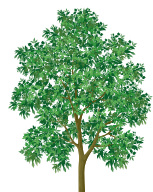


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
쉽표, 마침표.
2023년 9월 주요 기사 내용(2회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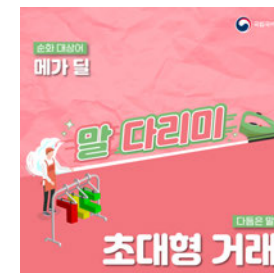
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, 마침표.

2023년 9월 주요 게시 내용(2회)



우리글 바로쓰기
닳은 말, 다른 뜻

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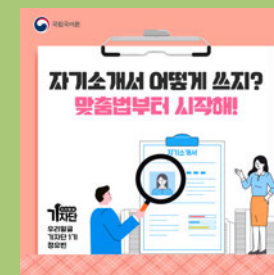
우리글 바로쓰기
말 다리미

6



걸어서 문학 속으로
아름다운 첫 문장

8



우리글 바로쓰기
우리말글 기자단

10

닮은 말, 다른 뜻

‘금새’와 ‘금세’는 어떻게 다를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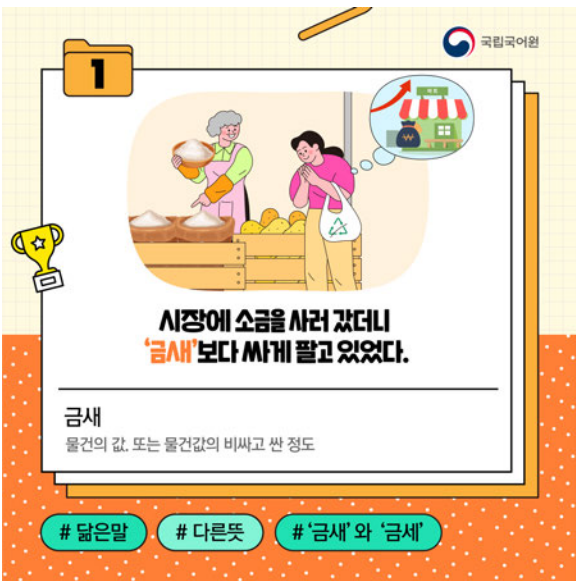


닮은 말, 다른 뜻

‘금새’와 ‘금세’는 비슷한 발음을 가졌지만 다른 쓰임을 갖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. 그럼 두 단어 ‘금새’와 ‘금세’의 쓰임은 어떻게 다를까요?

금새? 금세?

‘금새’는 어떤 물건의 시세나 값의 뜻으로 쓰이며, 부사 ‘금세’는 ‘지금 바로’의 뜻으로 쓰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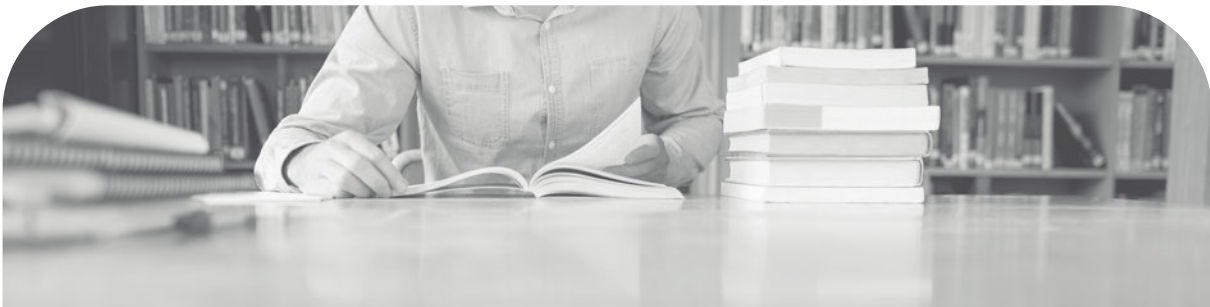
금새

물건의 값. 또는 물건값의 비싸고 싼 정도

‘금새’는 속담 ‘금새도 모르고 싸다 한다’처럼 ‘물건의 값이나 시세’와 그 쓰임이 비슷합니다.

아래처럼 씁니다.

- 1)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라서 팔아 주려고 했더니 또박또박 ‘금새’를 다 받는다.
- 2) 시장에 소금을 사러 갔더니 ‘금새’보다 싸게 팔고 있었다.
- 3) 고구마를 팔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‘금새’를 정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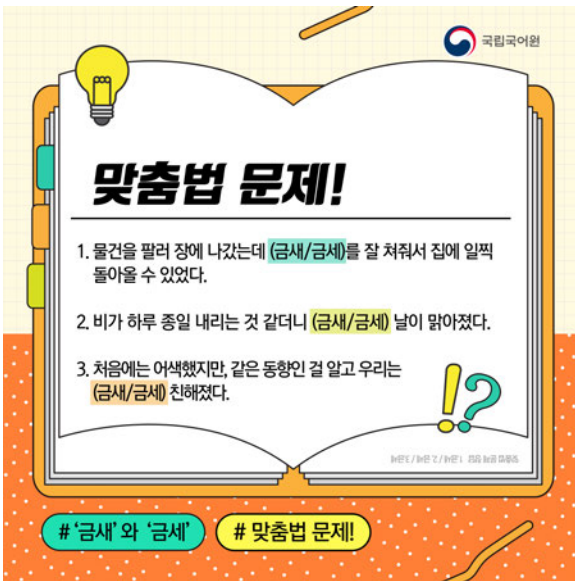
금세

지금 바로. ‘금시에’가 줄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씁니다.

‘금세’는 ‘소문이 금세 퍼졌다.’처럼 ‘지금 바로’의 의미로 씁니다.

아래처럼 씁니다.

- 1)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‘금세’ 나타났다.
- 2) 배가 고팠는지 아이들은 눈앞에 놓인 빵을 ‘금세’ 먹어 치웠다.
- 3) 에어컨을 켜니 ‘금세’ 방 안이 시원해졌다.



알쏭달쏭 맞춤법 문제

1. 물건을 팔러 장에 나갔는데 (금새/금세)를 잘 쳐워서 집에 일찍 돌아올 수 있었다.
2.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것 같더니 (금새/금세) 날이 맑아졌다.
3. 처음에는 어색했지만, 같은 동향인 걸 알고 우리는 (금새/금세) 친해졌다.

1. 금세 2. 금세 3. 금새

말 다리미

‘메가 딜’ 이 아닌 ‘초대형 거래’ 로



낯선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리자

세계적인 규모의 기업들은 자사의 이익을 증대하고자 규모가 매우 큰 거래를 합니다.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구단과 계약할 때에도 아주 높은 연봉으로 이목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듯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큰 거래를 뜻하는 말로 ‘메가 딜’이라는 외래어가 쓰이곤 합니다.



‘메가 딜’이란?

‘메가 딜’은 주로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, 규모가 매우 큰 거래의 뜻으로 쓰입니다.



‘메가 딜’ 이 아닌 ‘초대형 거래’ 로

‘메가 딜’은 ‘매우 큼’을 나타내는 영단어 메가(mega)와 거래를 뜻하는 딜(deal)이 합쳐진 말입니다.

낯선 외래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‘초대형 거래’로 대신하는 것은 어떨까요?

관련 예문

1.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특급 ‘메가 딜(→초대형 거래)’이 등장했다.
2. 최근 한 달간 100억 달러 이상의 ‘메가 딜(→초대형 거래)’ 3건이 연이어 나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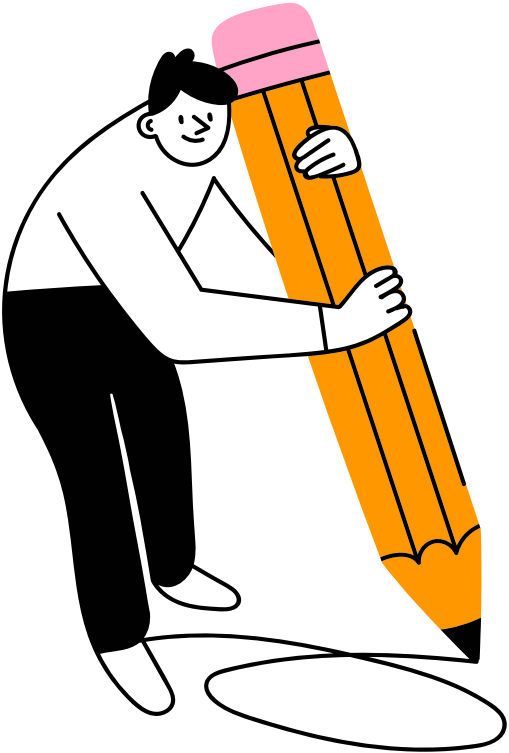
아름다운 첫 문장

‘시간’ 이 있는 아름다운 첫 문장



‘시간’ 이 있는 아름다운 첫 문장

아름다운 첫 문장, 오늘은 ‘시간’ 이 있는 첫 문장을 소개합니다.
유병록 시인의 「검은 돌베개」와 조해진 소설가의 「영원의 달리기」의 첫 문장입니다.



첫 문장, 첫 인상

꿈에서라면
시간을 되돌리는 일이 대수인가요.
유병록, 「검은 돌베개」 부분

유병록 시인의 「검은 돌베개」의 첫 문장입니다.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. ‘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...’ 하고 생각하며 자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, 이 시는 꿈에서라도 시간을 돌려 후회하는 일을 바로잡는 노력을 한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. 꿈에서 시간을 돌려 그때로 돌아가는 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. 다만 화자는 이런 비유를 통해 이전의 실수와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하며,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.



첫 문장, 첫 인사

당신을 알아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.
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던 먼저 말을
꺼내는 일이 드물었고 소리내어 웃는 법도 없었다.
박민규, 「카스테라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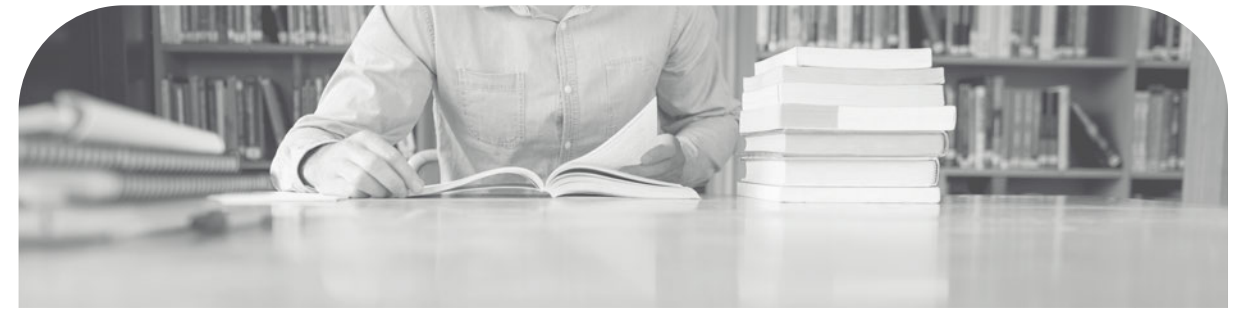
「영원의 달리기」는 신문을 배달하며 보급소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던 연인의 궁핍했던 삶을, 그녀가 죽은 후에나 알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. 남자는 연인이 죽은 이후 웃지도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으며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, 그때 타인의 꿈을 찾아가는 존재가 나타나고, 그 존재에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. 작가의 상상력과 섬세한 문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.

자기소개서 어떻게 쓰지? 맞춤법부터 시작해!



자주 틀리기 쉬운 맞춤법

다들 자기소개서를 써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?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입시부터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대표적인 글쓰기 영역입니다. 저도 여러 번 써 본 경험이 있는데요,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특징과 장점을 부각해야 하는 글인 만큼 오류가 없어야 유리하겠죠? 오늘은 자기소개서의 기본 요건인 맞춤법을 다뤄 보려고 합니다.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틀리기 쉬운 맞춤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

든지/던지

첫 번째는 ‘든지/던지’입니다. 보통 자기소개서에서 “이 회사를 위해 어떤 일이든지 묵묵히 해내겠습니다.”와 같은 문장을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. ‘든지’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

「1」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, 대상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, 「2」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, 즉 ‘든지’는 선택이나 무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

반면 ‘던지’는 지난 일, 과거 회상을 할 때 씁니다.

앞 문장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맡은 바를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‘던지’를 쓰면 안 되겠죠?

로서/로써

두 번째는 ‘로서/로써’입니다. 자기소개서를 쓸 때, “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회사를 위해 이바지할 것입니다.”, “책임감으로써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.”와 같이 ‘로서/로써’가 들어간 문장들을 자주 씁니다.

‘로서’는 지위, 자격, 신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. 반면 ‘로써’는 수단과 도구, 재료를 나타낼 때 씁니다. 앞 문장에서 ‘회사의 일원’은 자격, 신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‘로서’가 쓰였습니다. 또한 ‘책임감으로써’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‘로써’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결맞은

세 번째는 ‘결맞은’입니다. 보통 자기소개서에서 학교 혹은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함을 강조할 때, “저는 이곳에 결맞은 인재입니다.”라는 문장을 씁니다. 하지만 사람들은 ‘결맞은’과 ‘결맞는’을 혼동해서 쓰곤 하는데요, 하지만 ‘결맞다’라는 형용사는 어미 ‘-는’과 결합할 수 없으므로 ‘결맞는’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.

내로라하는

네 번째는 ‘내로라하는’입니다. 자신을 뽐내기 위해, “저는 학창 시절에 내로라하는 학생이었습니다.”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. 혹은 “저는 이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회사와 꼭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.”와 같은 표현도 쓸 수 있겠죠? 하지만 ‘내로라하는’을 가끔 ‘내노라하는’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. ‘내노라하는’은 비표준어라는 점, 꼭 명심해 주세요!

입시든, 취업이든 평가의 첫 단계는 자기소개서입니다. 즉, 자기소개서로 자신의 첫인상을 어떻게 각인시킬지 결정됩니다.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소개서에서 맞춤법을 잘 지키는 것은 자신의 어휘 실력, 꼼꼼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다들 이 글로 인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